광주·전남 종부세 감소 타격

지방교부금 2,900억원 줄어든다

손실분 보전 없을 땐 재정 파탄…정부 후속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과 세율을 낮추고, 장차 폐지키로 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던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등 지자체들은 매년 사회복지 예산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종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여 가구에 불과해 이번 세율 인하 조치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종부세 교부금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열악한 교육재정 등에 활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산난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당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차원에서 전액을 지자체 재원확충용으로 교부됐다.

종부세는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과세기준이 9억원이어서 4천41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부터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세수가 1조3천275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82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감소액에 대한 보전책을 내놓지 않아 이대로라면 2010년까지 2조4천500억원의 종부세 감세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해 종부세 재원으로 교부되던 균형재원 217억원과 재산세·거래세 감소 보전분 470억원 등 총 687억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도 균형재원 2천212억원과 재산세·거래세 감소 보전분 29억원 등 2천241억원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교부금 손실분에 대해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부족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희종·윤영기 기자 chae@

'대~한민국' 순회전 23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리고 있는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대~한민국' 순회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정부 기록물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0월10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제헌헌법 초안', '광주사태 종합보고', 대통령 기록물 등 200여점이 선보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국 부패지수 40위

작년보다 3단계 상승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23일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한국의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로는 0.5점 개선됐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세 단계 상승한 것이다.

반부패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종부세 개편안 여당서도 반발

대폭 수정 불가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론이 적지 않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처리할 경우 '부자를 위한 감세', '부자 정부'라는 여론의 비판과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전까지 재차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추후 의총을 한두차례 더 열기로 했으며, 정부측과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내달 2일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체 의견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돌목 거북배' 400년만에 다시 뜬다

'명량대첩' 계승…오늘 해남 우수영서 취항식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이 벌어졌던 해남 울돌목 해상을 장악했던 거북배가 400년 만에 다시 뜬다.

전남도는 24일 오후 4시 해남 우수영 선두마을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영록 국회의원,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여행사 대표, 해남·진도군수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북선형 유람선인 '울돌목 거북배' 취항식이 열린다.

거북선 형태의 배로서는 전국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은 '울돌목 거북배'는 다음달부터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함대의 동선인 해남 우수영~진도 녹진항~울돌목~벽파진항 구간을 1일 4회 상업 운항하게 되며, 1회 왕복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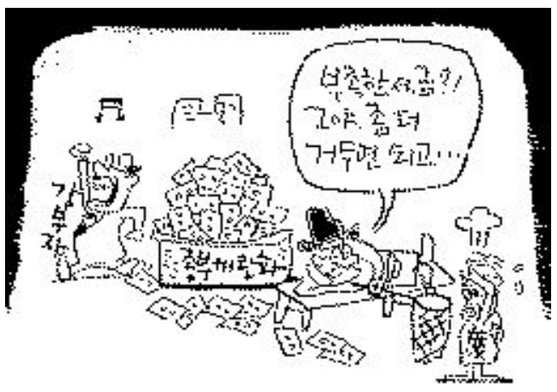
'울독목 거북배'는 특히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거북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상업 운항에 앞서 오는 30일 지역민과 관계자 130여 명을 태우고 독도에 접안,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조선 수군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치를 예정이다.

또 10월 11일부터 4일간 울돌목 일원에서 'Again 명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천300여 명이 참여해 재현하는 '울돌목의 신화, 명량대첩'과, 3만여 명이 연출하는 4㎞ 길이의 '강강술래' 등을 하는 '2008 명량대첩축제' 행사에도 참여해 판옥선, 안택선과 함께 전승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울돌목 거북배는 전남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남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남개발공사에 의뢰해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이다. 368t급의 이 배는 길이 49m, 폭 10m로 모두 17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빛日만평

- 김종두



나라살림 참 쉽게도 한다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크게 늘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으로 인해 복지예산을 구성하는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참여정부 시절 복지사업 지방이양정책에 관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3%(6천845억원)에 머물던 지방비 비중이 지난해에는 64%(1조4천313억원)로 늘었다. 액수 기준으로도 7천468억원이나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4년 44%에 불과하던 복지사업 지방비 비율이 지난해에는 52%로 늘었다. 액수 기준으로도 2004년 181억원에서 지난해 299억원으로 39.5% 증가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11.0%에 불과한 전남의 경우도 2004년 43%에 머물던 지방비 비중이 지난해 53%로 확대됐으며 액수 기준으로 336억원에서 650억원으로 48.3%나 늘어나 지방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복지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는 광주의 경우 2004년 229억원에서 지난해 273억원으로 44억원(16.1%), 전남의 경우 437억원에서 574억원으로 137억원(23.9%)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무원 직무범죄 '솜방망이 처벌'

광주·전남 101건 중 기소 25건 뿐

일반 기소율 평균보다 10%P 낮아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의 올 직무 관련 범죄는 101건으로 이 중 25건(24.8%)만 기소돼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평균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기관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남도가 78건 중 23건이 기소돼 29.5%의 기소율을 보였고 광주시는 23건 중 2건만 기소돼 8.7%의 기소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공무원 범죄 기소율 5.3%(총 3천661건 중 194건 기소) 보다는 높았으나,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 평균 35%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남도의 23건 기소 건수는 경찰청 3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경기도(21건), 서울시(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건, 전남도교육위원회 3건, 전남도교육청 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기소 건수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사법부는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산행 안내 광고는 18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장흥전력(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신성지엔이(이하"을"이라 한다)는 2008년 09월 23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630조의9제1항의 출자재산 이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년 9월 24일

"갑" 상 호 : (주)장흥전력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181-1
대표이사 : 사 금 환

"을" 상 호 : (주)신성지엔이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400-37
대표이사 : 최 호 용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전자전기(주)(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소특스(이하"을"이라 한다)는 2008년 09월 23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2항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630조의9제1항의 출자재산 이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08년 9월 24일

"갑" 상 호 : 전자전기(주)
소 재 지 : 여수시 미평동 578-10
대표이사 : 김 동 성

"을" 상 호 : (주)소특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3-27
대표이사 : 김 복 덕

공 시 최 고

사 건 2008카공 26
신청인 박미정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96-8
씨엔에스후레쉬빌 101동 202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9. 1. 29. 11: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종 류 : 자기앞수표
· 번 호 : 00855690
· 금 액 : 금500,000원
· 발 행 일 : 2008년 9월 12일
· 발 행 인 : 나주다시농협중앙회

2008년 9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임 수 희

분할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전일전기 주식회사("갑")와 주식회사 니푸르네트웍("을")은 2008년 9월 23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면허번호 : 광주-0012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갑"은 상법 제530조 9 제2항에 의거 "을"로부터 인수한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갑" 상 호 : 전일전기 주식회사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618
대표이사 : 윤 인 순

"을" 상 호 : 주식회사 니푸르네트웍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51-19
대표이사 : 이 중 민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08-101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이외의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공 사 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국도18호선 진도 회동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전남 진도군 고군면 급계리 산90-2	2기	무

2. 개장사유 : 국도18호선 진도 회동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
3. 개장후 안치장소 : 남골당 안치
4. 개장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08. 09. 24. ~ 2008. 12. 23.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7. 신고처
- 국도18호선 진도 회동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 현장사무소 (☎061-544-4470)
-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062-970-6322)

2008년 9월 24일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장성군 공고 제2008 - 231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개최 공고

장성 우리C.C (대중9홀) 3홀증설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평가대상 사업지구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장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성 우리C.C(대중9홀) 3홀증설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산 123-1 일원
- 사업규모
  - 면 적 : 284,497㎡ (증설 : 147,404㎡)
  - 시설규모 : 9홀 (대중골프장)
- 사 업 기 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시행자 : 덕승개발주식회사
2. 공람
- 기 간 : 2008. 9. 24 ~ 2008. 10. 13(20일간)
- 장 소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북이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08. 9. 29(월) 15 : 00
- 장 소 : 북이면사무소 2층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2008년 10월 20일)
- 제 출 처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 방안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390-7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아보청기 ◇

10~30%
보청기 보상판매
무료출장상담
(청력검사)
부모님의 어두운 귀를 활짝 열어드리세요.
☎062)527-3171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고가방향)맞은편

실전경매 토지시모 개발리모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9기 원생모집

실 전 경 매	이성근 교수	민사집행법	연제호 교수
종류별투자	박종성 교수	토 지 특 강	정용현 교수
권 리 분 석	김남인 교수	낙찰사례분석	안종현 교수
리노베이션	양은열 교수	인도 및 명도	조재팔 교수
유치권/지상권	김홍식 교수	임대차보호법	이성실 교수

■ 모집기간 : 2008년 8월 27일 ~ 9월 25일 (09:00~17: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교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2매
■ 개 강 일 :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6시 (3개월 과정)
■ 수업시간 : 주간반 2시~5시 / 야간반 7시~10시

무료 공개강좌
◈ 일시 : 2008.9.17(수), 2008.9.24(수) 오후 2시 / 7시
◈ 장소 : 호남대 행정대학원 (쌍촌동 본관)
◈ 접수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마감)
☎ 062) 381-4986, 370-8336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부동산경매사협회 후원